

고흐·파바로티...스크린 감동 속으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모두가 사랑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와 '파바로티'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닐 플랫'을 광주극장 스크린을 통해 만나보자.

먼저 '고흐, 영원의 문에서'는 26일 개봉한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 마지막 나날을 담은 영화다. '잠수종과 나비' (2008)로 제 60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줄리언 슈나벨 감독의 신작으로 화가인 그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한 빈센트로 고흐가 세상을 바라본 방식, 예술을 향한 열정을 영상에 담아내고자 했다. 고흐 역을 맡은 윌렘 더포는 제7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스카 아이삭이 폴 고갱 역을, 매즈 미켈슨이 사제역을 맡았다.

영화 '파바로티' (2020년 1월1일 개봉)는 금세기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무대와 사랑을 영상에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스크린으로 부활한 전설의 테너 파바로티의 역사적인 공연과 함께 무대 위에선 강렬한 카리스마, 무대 아래에선 전광스런 매력을 지닌 파바로티의 인간적인 매력이 유명인사들의 자료화면과 증언을 통해 보여진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릴레이 상영이 이어졌던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 엠 브리딩'은 31일 개봉한다. 영화는 예기치 못한 변화로부터 인생의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특별한 도전을 담았다. 평범한 건축가 '닐 플랫'은 서른셋의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는다. 영화는 그의 사랑과 우정,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감동 실화다. 이날 오후 5시30분 특별 상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부는 송일희재단(루게릭요양병원 건립사업)과 한국루게릭병 협회(루게릭환우 복지사업)에 기부된다.

빈센트 반 고흐·파바로티·닐 플랫

실존인물 소재 영화 26일부터 광주극장서 상영

이밖에 실존인물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진한 여운을 남길 영화도 만날 수 있다. '와일드라이프',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그것.

27일 개봉하는 '와일드라이프'는 폴리처상 수상작가 리처드 포드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옥자', '데어 윌 비 블러드' 등에서 섬세한 연기를 펼친 헐리우드 배우 폴 다노의 감독 데뷔작이다. 1960년 몬테나로 이사한 세 가족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로 제34회 선댄스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개막작으로 선정됐고 제36회 토리노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2년 만에 스크린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전설' (1998) (2020년 1월1일 개봉)은 배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본 적 없는 천재 음악가 '나인틴 헌드레드'의 아름답고도 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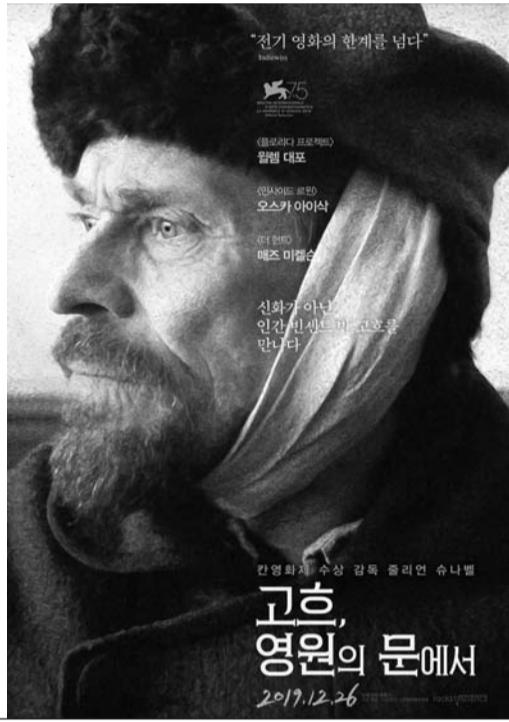
- '고흐, 영원의 문에서'
- '파바로티'
- '아이 엠 브리딩'
- '와일드라이프'
- '피아니스트의 전설'

한 삶을 그린 영화다. 명작으로 알려진 '시네마 천국', '베스트 오브'를 잇는 3부작으로 판타지적인 설정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 귀를 사로잡는 음악 등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전은재 기자 ejf6621@kwangju.co.kr



'파바로티'



"목포 문학의 전통·자산 담아"

김선태 시인 '목포문학사와 전남시단사' 펴내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 김우진, '한국여성소설의 대모' 박화성,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차범석, '한국 평론문학의 독보적인 존재' 김현 등.

목포에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목포는 훌륭한 문학적 전통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다.

시인인 김선태 목포대 국문과 교수가 '목포문학사와 전남시단사' (태학사)를 펴냈다. 전자는 2017년 '목포시사' 문학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후자는 계간 '시인수첩'에 발표한 '한국의 시단-전남편'을 수정·보완했다.

'목포에 산 지 40여 년째에 접어들다. 목포대

학교 국문학과에 재직하면서 목포를 기반으로 문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필자는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전통과 자산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리고 목포문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오던 차에 이 책을 펴낸다.'

먼저 '목포문학사'는 올해로 개항 122주년을 맞이한 목포가 한반도 서남부 그트머리인 변방에 자리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한 내력을 조명했다. 앞서 언급한 문인들 외에 천승세 소설가, 김지



하·최하림 시인, 황현산 평론가 등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사들이다.

두 번째 '전남시단사'는 작곡에 이르러 접체돼 있는 지역 시단의 활로를 찾기 위해 모색한 글이다. 전남시문학의 뿌리와 정신, 전남 현대시문학의 흐름, 전남 시단의 과제와 전망 등을 다뤘다.

김 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어디까지 함께 기술하고, 또 어디부터 나누어 기술할 것인지 모호한 점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한 전남시단사는 이 글이 처음이 아닌 한 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강진 출신의 저자는 광주일보 신춘문예 (1993) 당선과 월간 '현대문학'에 시와 평론이 추천돼 등단했다. 시집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을 펴냈으며 연구서 '김연구 시 연구', 평론집 '진정성의 시학' 등을 펴냈다. 애지문학상, 윤동주문학상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송년 국악한마당'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모여 송년공연을 선보인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26일 오전 11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에서 '송년 국악한마당'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우리국악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명을 초대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 감상과 전통국악예술의 진수를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퓨전국악 부문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Ola올라팀이 문을 연다. 이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정상의 명창이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속대머리'를 무대에 올리며 금년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혜빈 명창과 김찬미 명창이 각각 국악가요 '배 띄워라', '춘향가' 중 '동원경사 대목'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소희 명인은



정혜빈

이정아

'살풀이춤'을 준비했고 가야금병창 강사인 이정아 명창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선보인다. 특별출연하는 가수 오현오는 '동백아가씨'를, 정동원 군은 색소폰 연주를 준비했다.

마지막은 마미숙, 김찬미, 정상희, 정혜빈, 이정아 명창이 '남도민요'를 부르며 송구영선의 무대로 마무리한다. /전은재 기자 ejf6621@



'카메라타전남' 정기연주회 2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2019년을 마무리하며 '겨울의 낭만'을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남대학교 박인욱 교수가 이끄는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2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4번 1악장',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K.364 1악장',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스밀라' 서

곡,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이다. 또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을 비롯해 푸치니의 '투란도트', 베르디의 '오텔로' 등 오페라 아리아를 만날 수 있다.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김희재,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 (전남대 교수), 비올리니스트 임요섭 (서울시향 단원), 소프라노 오미선 (성신여대 교수), 테너 윤병길 (전남대 교수), 바리톤 공병우 (전남대 교수)가 오른다. 카메라타전남(Camerata chonnam)은 예술가 집단을 의미하는 카메라타와 전남 지역을 의미하는 전남의 합성어로,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전석초대. /전은재 기자 ejf6621@

올해 마지막 금요국악공감 '국악의 향연' 27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이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요국악공감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27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2019년 금요국악공감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됐으며 창작국악부터 창극과 어린이극 그리고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국악공연까지 진도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가야금병창 '진도방아타령', 전통춤 '규장농월', 기악독주 '서용석류 대금산조', 민요 '금강산타령', '동백타

령', 사물놀이 '삼도설장구'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진악당 1층 로비에서 좌석 번호가 적힌 티켓을 발급하며 공연장 입장 시 티켓을 확인 받은 후 지정된 좌석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본 공연은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f6621@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